



안녕하세요? 강신문 수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세례를 받았고 수녀원에 오기 전에 레지오, 성가대, 주일학교교사 등 활동을 하며 수녀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5년을 기다린 끝에 1984년에 입회를 했습니다. 성소의 대한 특별한 계기라기보다 평소에 타인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예수고난회 마 라이문도 신부님의 추천을 통해 우리 수녀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6남매 중 막내인 제가 수녀원에 들어오니 동기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아 말이가 되었습니다. 부담감이 꽤나 컸지만 제 뒀을 동기들의 노력과 도움으로 부족함을 채우고 지금까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첫 사도직은 본원에서 관리 겸 회계를 맡았습니다. 이후 전주 여의동 성당 본당수녀로 2년, 서울 가톨릭맹인선교회 전교수녀로 일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사를 전공하여 공부하고 나서 제천종합사회복지관과 제천자활후견기관에서 책임을 맡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22여 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 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부천여성의쉼터에서 일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여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프로그램을 통한 상처치유와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을 마련했었습니다. 사회복지 이념 위에 하느님의 사랑과 사랑의씨튼수녀회 설립이념을 통합해서 실천의 노력을 기울였고 제게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본원에 파견되어 5년 동안 본원책임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연로하신 수녀님들과 환자 수녀님들을 위한 집인 '마더씨튼집' 책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사랑의 체험과 공동체 수녀님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그분의 은총과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도록 노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로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Hello Sisters! My name is Sister Kang, Shin Mun. I received the sacrament of baptism as a high school student. Before entering our religious community, I was an active member of the parish choir and a Sunday School catechist. While joining various church activities, my dream grew to be a catholic sister. However, my family objected, so I had to wait for five more years to get my parents' permission. Finally, I joined in 1984. I had no particular intention for my religious vocation. I just wanted to serve others throughout my life. Fr. Ma Raymund, a Passionist, wrote the recommendation letter for me.

As I entered, I found myself the oldest among my peer group, though I am the youngest in my family. As the oldest in our group, the responsibility was not familiar to me. Thanks to the support of the sisters in my group, I could fulfill my role over the years, and we are doing well. My first ministry was treasurer and manager of the Provincial House. Later, I ministered in parishes (Yeoui-dong parish, Jeonju, two years), Catholic Missionary Society for the Blind (Seoul Diocese), Study (Social Welfare),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Center, Jaecheon (director), and Promotion Agency of the Social Welfare Center, Jaecheon (director). For twenty-two years, I had the opportunity to encounter and spend time with those in need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through providing good service.



I also worked at the Shelter for Women from Domestic Violence in Bucheon. The abused women and their children can stay, attend programs for healing, and secure an independent foundation. I tried to put my energy toward living out the social welfare notion integrated with the mission of our Congregation, and I was so happy. After that, I was missioned to the Provincial House again and worked for five years as the sister servant. Now I am missioned as sister servant at Mother Seton House, which is built for sick and senior sisters.



I, who am not perfect, could live as a Sister of Charity up to now because I put everything in God's care and prayed to Him. The power of God enabled me to exist up to now. I am grateful to God and our sisters for all the experiences of love that I experienced. I am trying to live every day in the love and graces of God. I wish to live each day with God's grace and live a life that is

good in God's sight. I want to close my words with my favorite biblical phrase;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